뉴시티교회 리딩지저스

2026.8.31.-9.5

연대기순 성경 통독 35주 차

하늘이 열리니

예레미야애가 4~5장, 오바댜서, 에스겔 1~19장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여는 글

사랑하는 뉴시티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폐허에 앉아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애가의 마지막 두 장을 마저 부르고, 폐허를 떠나 포로의 땅으로 갑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사람들 한가운데서 제사장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겔 1:1).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보좌가 바퀴를 달고 포로의 땅까지 찾아옵니다.

이번 주부터 통독은 포로기에 들어섭니다. 월요일에는 유월에 읽었던 오바댜서를 한 번 더 읽는데, 형제의 환난 날에 방관한 에돔을 향한 이 말씀이 애가 4장 끝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눈에

8월 31일 (월) · 하늘이 열리니

9월 1일 (화) · 두루마리를 먹으라

9월 2일 (수) · 영광이 떠나실 때

9월 3일 (목) ·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9월 4일 (금) · 피투성이라도 살라

9월 5일 (토) · 돌이키고 살라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고, 오른쪽 면에 응답을 적으며 한 주를 걸어가십시오.

8월 31일 (월) | 예레미야애가 4~5장; 오바댜서; 에스겔 1~2장

하늘이 열리니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애가의 마지막 두 장이 폐허의 참상을 노래하고 이 기도로 끝났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애 5:21). 오바댜서는 형제 유다의 환난 날에 방관하고 약탈에 가담한 에돔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옵 1:10-14). 그리고 그발 강가 포로들 가운데서 제사장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바퀴들 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겔 1:28).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가, 포로들이 앉아 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건물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 백성이 끌려간 곳까지 움직여 찾아갑니다. 무너진 것은 성전이지 보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 하늘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나의 자리에서도 그분이 하늘을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31일 (월) · 하늘이 열리니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일 (화) | 에스겔 3~6장

두루마리를 먹으라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3:3).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3:17). 에스겔은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려 포위하고, 사백삼십 일을 모로 누워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상징 행동을 감당했습니다(4장).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나누는 행동으로 심판을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5장).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말씀을 먹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슬픔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인데도 삼키니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조차 그 안에 단 맛이 있습니다.

먹은 말씀은 몸이 됩니다. 에스겔은 입으로만 전하지 않고 모로 눕고 굶고 깎으며 온몸으로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하셨고, 마침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요 6:35). 오늘 읽는 말씀을 눈으로 훑지 않고 꼭꼭 씹어 먹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일 (화) · 두루마리를 먹으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2일 (수) | 에스겔 7~10장

영광이 떠나실 때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끝이 왔다는 선언이 반복되었습니다(7:2-6).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그 안의 우상들을 차례로 보이셨습니다. 장로들이 각기 우상의 방에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말하며 분향했습니다(8:12). 심판 전에 하나님은 성중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셨습니다(9:4).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습니다(10:18).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성전 마당에서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는 각자 자기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은 한 번에 떠나지 않습니다. 문지방으로, 그룹들 위로, 동문으로, 머뭇거리듯 단계를 밟아 떠나갑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들에게 먼저 표를 그리십니다.

떠나셨던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고(요 2:21), 우리가 허문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마당의 예배가 아니라 골방까지 그분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일 (수) · 영광이 떠나실 때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3일 (목) | 에스겔 11~14장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했습니다(11:15). 하나님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11:16). 이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11:19-20).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말하며 회칠했고(13:10), 장로들은 마음에 우상을 들인 채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14:3).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없는 그 땅에서 내가 직접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

성소가 장소에서 인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길이 되어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거하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셨으니, 어디에 있든 예배가 끊기지 않습니다. 낯선 자리, 흩어진 자리에서도 그분 안에서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3일 (목) ·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4일 (금) | 에스겔 15~16장

피투성이라도 살라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처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들에 버려져 죽어 가던 핏덩이 아기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16:6). 하나님은 그 아기를 기르시고, 언약을 맺어 씻기고 입히고 단장시키셨습니다(16:8-14).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아름다움을 믿고 우상과 행음했습니다. 심판 선언 끝에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16:60).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16장은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은 자격도 매력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핏덩이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살리셨습니다.

배신의 목록이 길게 이어진 뒤에도 결론은 파기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피투성이 신부를 자기 피로 씻어 단장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니,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음성을 다시 듣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4일 (금) · 피투성이라도 살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5일 (토) | 에스겔 17~19장

돌이키고 살라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시드기야의 배신과 최후가 선언되었고, 그 끝에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의 연한 가지를 취하여 높은 산에 심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17:22).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폐하시고, 각 사람이 자기 길로 심판받는다 하셨습니다(18:2-4). 그리고 호소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18:32).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큰 독수리들이 세계를 옮겨 심는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는 한 그루가 나옵니다. 백향목의 연한 가지 하나. 여리고 작은 그 가지가 자라 각종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18장은 핑계를 걷어 내는 장입니다. 조상 탓도 환경 탓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죄가 아니라 호소입니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살라.

연한 가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사 53:2).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나라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마 13:31-32). 내일 주일, 새 달의 첫 예배 앞에 섭니다. 미루어 온 돌이킴이 있다면 오늘 그 한 걸음을 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5일 (토) · 돌이키고 살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